

《제국의 태양, 엘리자베스 1세》

여성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엘리자베스 여왕(1558~1603) 치세의 잉글랜드는 내외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다양한 종교적 견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국고는 고갈되었으며, 밖에서는 교황, 신성로마제국, 에스파냐,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망라된 국제가톨릭동맹이 위협하고 있었다. 스물다섯의 나이로 엘리자베스가 즉위했을 때 많은 이들이 나라의 장래를 우려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글_박상익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탈바꿈시켜 잉글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여왕은 남성이었다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해도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그 점을 참작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여왕에게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 여왕이 오랫동안 망설이더라도 신하들은 “여자가 우유부단한 것은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허점을 역이용하여 달갑지 않은 결정을 회피했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최대한 미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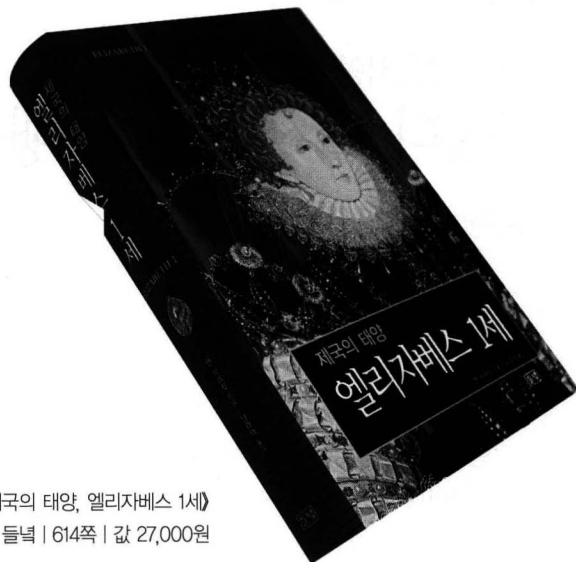
국가 안보 위해 결혼 협상 이용

결혼 문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처신은 절묘하기 짝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유럽 왕족들 사이에서 ‘막대한 지참금과 명예까지 지닌 헬레네 같은 여인’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적령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한껏 드높인 상태에서 대외 관계를 요리했다. 쟁쟁한 청혼자들이 즐비했지만 가장 흥미로운 상대는 프랑스 국왕의 동생 알랑송 공작이었다. 혼담이 시작된 1572년 당시 여왕의 나이는 서른아홉, 알랑송은 열여섯이었다. 나이 차이는 무려 스물세 살이었다.

에스파냐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를 잡아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이 결혼협상은 처음부터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었다. 중신들은 알랑송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혼사가 끝났음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엘리자베스는 알랑송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다. 여왕은 가능한 한 오래 혼담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주변에서는 그가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면 보복하러 들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여왕은 그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간 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대처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므로 구혼의 속도는 늦춰졌으나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여왕은 알랑송에게 자신이 아직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게 하려고 애썼다. 여왕은 알랑송이 선물한 허리띠를 착용했으며, 그가 선물한 장갑에는 여봐란 듯이 하루에도 백 번씩이나 입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궁정 무도회에 프랑스 대사를 초청하여 알랑송이 보낸 편지들을 낭독하게 하면서 사랑에 빠진 여인처럼 행동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식의 연기를 몹시 즐겼다.

1580년 여름에 여왕은 다시 구혼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에스파냐 왕의 포르투갈 병합으로 권력과 재산이 나날이 늘고 있는 불길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관심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580년 초에 포르투갈 왕이 직계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자신이 적법한 후계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군대를 파견하여 8월에 리스본을 점령했다. 잉글랜



《제국의 태양, 엘리자베스 1세》
앤 서머셋 지움 | 남경태 옮김 | 들녘 | 614쪽 | 값 27,000원

드는 펠리페의 세력 팽창으로 유럽의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화되는 과정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방에서 에스파냐 군대가 조여오는 것에 깜짝 놀란 엘리자베스는 1580년 8월에 프랑스 측에 전갈을 보내 가급적 빨리 결혼 중개인들을 잉글랜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1581년 봄에 프랑스 결혼 중개인들을 맞을 채비가 완전히 갖춰졌다. 4월 25일에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다. 얼마 후 중개인들은 여왕과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아야 했다. 놀랍게도 엘리자베스는 활기찬 어조로, 자신은 아직 알랑송과의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릴 뿐 아니라 그와 결혼하면 최근에 부쩍 늘어난 잉글랜드 가톨릭교도들을 자극하게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그녀는 결혼과 무관하게 프랑스와 느슨한 동맹을 맺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궁지에 몰린 중개인들은 그런 문제는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결혼협정 이외에 다른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중개인들은 여왕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몇 주일 잉글랜드에 머물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결국 6월에 귀국하고 말았다.

이렇듯 프랑스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에도 여왕은 두 나라 사이에 모종의 연결 상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왕은 알랑송과 단둘이 있을 때는 어느 여성이 남성에게 하듯이 그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 마침내 11월 22일 여왕은 프랑스 대사에게 알랑송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했다. 말을 마친 뒤 여왕은 알랑송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에게 반지를 준 다음 궁정의 모든 신사숙녀들을 불러 자신이 한 말을 반복했다. 이 선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왕이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궁정의 부인들은 여왕이 물러간 뒤 밤새 슬퍼하고 통곡했다. 이 때문에 여왕은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뛰어난 지략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왕에게 큰 이득이었다. 이제 여왕은 프랑스에 자신과 알랑송의 결혼에 대해 잉글랜드 신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결혼 전에 프랑스로부터 엄격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구실을 얻었다. 여왕은 장차 잉글랜드가 에스파냐의 침략을 당할 경우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돕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엘리자베스의 결혼 결심을 처음 접했을 때 프랑스는 깜짝 놀라며 반색을 했으나 그녀의 까다로운 조건을 듣고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알랑송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여인의 경박함이며, 섬사람의 변덕이여.” 여왕은 프랑스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일을 망친 것이 프랑스이고 자신과 알랑송이 결혼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프랑스에 있다고 몰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알랑송을 최대한 부드럽게 차버린 것에 만족했다.

여왕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알랑송과 작별하는 장면에서도 마음 편히 연기에 전념하여 슬픈 기색을 보일 수 있었다. 알랑송이 샌드위치의 정박지로 출발할 때 그녀는 캔터베리까지 배웅했고, 짐짓 다정한 태도로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측근 중신들에게도 울면서 알랑송을 다시 만날 희망이 없다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었으니 구혼에 실패한 알랑송도 여왕에게 악의를 품을 수 없었다.

여왕은 오랜 동안 유럽의 많은 구혼자들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결혼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면서, 특유의 유연한 대외 정책을 구사했다. 여왕은 구혼자들이 결혼 협상에서 온갖 약속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적절한 시기에 보기 좋게 구혼자들을 퇴짜 놓는 데도 명수였다. 잉글랜드는 결국 1588년에 에스파냐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펠리페에게 쓴맛을 보여줬다. 유럽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잉글랜드가 유럽 열강의 지위로 발돋움한 데는 엘리자베스의 노련한 결혼 협상도 큰 몫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박상익님은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서양사)교수이며 저서로는 《번역은 번역인가》 《언론자유와 경전 아레오파기티카》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읽기》 등이 있다.